

3/17/24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1 장 12-30 절

- (빌 1: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 (빌 1:13) 이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 (빌 1: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 (빌 1: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 (빌 1: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 (빌 1: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 (빌 1: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빌 1: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 (빌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 (빌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 (빌 1: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절관주** 요 16:7, 행 20:29
- (빌 1: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절관주** 고후 1:24

- (빌 1: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 (빌 1: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빌 1: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절관주 행 16:19-24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내세워 증거하고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서두를 꺼낸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의 근황 설명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는 서론(1:1-11), 본론(1:12-4:20), 마무리 인사(4:21-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라 하여 로마 황제를 모독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지나 않을까,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근황과 로마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것이 도리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 (빌 1: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 (빌 1: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 1: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을 통해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법정과 당시 최고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감독하고 감시하느라 접촉하는 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을 찾아 감옥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 년여 동안의 매임을 통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권력 핵심층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법정,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아그립바 1 세의 아들인 분봉 왕 아그립바 2 세와 가이사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한 내용입니다.

분봉 왕 아그립바는 그의 누이이자 처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라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온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총독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긴 아그립바는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하여 이튿날 아침 열리는 재판정에 참석해서 총독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변론을 직접 듣습니다.

(행 26: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행 26: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행 26: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행 26: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행 26: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행 26: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행 26:13)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행 26: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 (행 26: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행 26: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 (행 26: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 (행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 (행 26: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 (행 26: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 (행 26: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 (행 26: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 (행 26: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 (행 26: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 (행 26: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 (행 26: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 (행 26: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 (행 26: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 (행 26: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고소 내용과는 달리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도 바울을 풀어 주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공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육신의 안일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까지 가서 매임 바 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용기를 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두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빌 1: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빌 1: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 1: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 1: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바울의 사역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그를 도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이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평소 바울을 시기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빌 1: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과 미래의 영적인 구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속에 진실 사랑 소망 복종 전파 등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상급받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개인적으로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나 살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빌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 1: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으로 확신하며 자신이 살아서 풀려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들의 믿음이 진보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빌 1: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 1: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제를 돌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곧 하늘의 시민답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1: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함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주변의 핍박이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두려워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일치하며 그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 1: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후 11:22)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고후 11: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후 11: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고후 11: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후 11: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후 11: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후 11: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귀신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 등등) 모두 보았으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에서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교도들의 훼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에만 가치를 두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 그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살고 죽는 일에도 담대했습니다.

죽으면 그리스도 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는 않지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늘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의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하늘 시민의 의무와 책임도 다하십시오.

하늘 시민의 의무와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 전파 사명에 목숨거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